

서울시교육감선거 4파전 전망

# 조희연, 진보 단일후보 선출... 보수 분열로 어부지리?

현직 조희연 진보 단일 후보, 안철수 '교육 멘토' 조영달 서울대 교수  
곽일천·두영택·박선영·최명복 중 보수 단일 후보, 이준순 독자 출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 후보 1명, 보수 후보 2명, 중도 후보 1명이 경합하는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진보·보수 대결 구도가 될 경우 보수층 표가 둘로 쪼개질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희연(61) 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고, 중도로 분류되는 조영달(57)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도전장을 냈다. 보수 진영에서는 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표방하는 곽일천(62)·박선영(62)·최명복(70)·두영택(56) 4명의 후보가 10일 단일 후보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준순(62) 후보가 보수 후보 경선에 불참하고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일 치러진 '2018 서울특별시교육감추진위원회'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이성대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누르고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경선은 현직 프리미엄 없이 사전 등록한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70%)와 시민 1000명 대상 전화 여론조사(30%) 결과를 반영해 치러졌다. 후보 간 합의에 따라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 후보가 과반수를 훌쩍 넘게 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4년 임기를 마친 교육감으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첫 재선 서울시교육감이 되는 영예도 얻게 된다. 조 교육감과 경선에 참여했던 이성대 예비후보 측은 온라인 투표 집계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문가의 서버 검증을 요청한 상태지만, 경선 결과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보수 진영에선 '좋은 교육감 추대 국민운동본부(교추본)'와 '우리 교육감 추대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는 조희연(왼쪽부터)·조영달·이준순 예비후보. 보수 단일 후보로는 곽일천·박선영·최명복·두영택 후보 중 10일 선출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연합(우리감)' 공동위원회가 서울시민 대상 모바일 투표 형식의 경선을 주관해 오는 10일 단일 후보를 낼 예정이다. 경선에는 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곽일천 전 서울디지털고 교장, 박선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명복 한반도평화네트워크 이사장 등 예비후보 3명과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가 단일 후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수 진영 원로 130여 명의 추대를 받은 박 예비후보는 지난 3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열고 본격적인 SNS 소통에 나섰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 첫 게시글에서 "이념투쟁터로 변한 학교에서 희생양이 되어버린 어린 학생들을 보며 우리 교육을 하루빨리 건져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우선 반(反) 전교조 후보 분들과 함께 정정당당

한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어내겠다"면서 중도 보수 후보임을 강조하고, "중도 보수로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는 올바른 교육, 학생의 꿈을 키워주는 교육, 학부모의 불안을 씻어주는 교육, 교사들의 자부심을 살려주는 교육행정을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조 교육감이 올해 도입을 추진했다가 좌절된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추첨제 등을 공약하는 등 현 서울시교육감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전기에 치르던 외교와 자사고 입시를 일반고와 같이 12월에 치르기로 해 고교 서열화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등록은 5월 24일~25일까지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이달 31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6월 1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6월 8일~9일까지 오전 6시~18시까지 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동국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3년 연속 선정

문체부 공모사업 자유기획형 분야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자유기획형 분야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길 위의 인문학'이란 지역의 도서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인문학 동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동국대 중앙도서관(관장 임중연)은 '호모 엑스 마키나(Homo Ex Machina) 인간을 꿈꾸다 : 가족과 함께 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주제로 오는 6월~9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호모 엑스 마키나'란 인간으로부터 나온 기계라는 뜻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과 로봇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사업에서는 다문화 및 소외 계층 가정 학부모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알파고 인간과 겨루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로봇세상으로의 나들이 ▲백투더 퓨처에서 아이언맨까지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말인 토요일과 방학중에는 교내를 벗어나 국립중앙과학관, 남양주종합촬영장도 탐방 할 계획이다.

임중연 관장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참여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가정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세대 간 소통, 이해와 협업으로 지혜와 지식을 전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누리집(www.libraryonroad.kr)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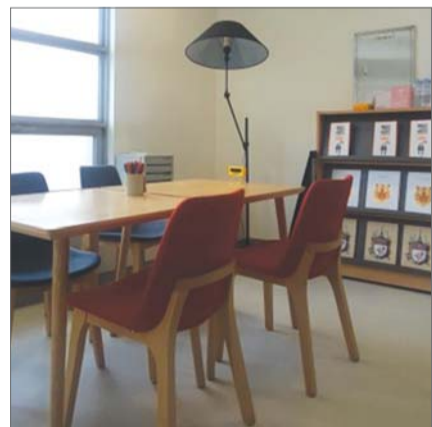
## 고려대 '진로진학상담센터' 오늘부터 상시운영

고려대학교(총장 염재호)는 학생부중합전형(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설치해 상설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상담 내용은 학종 안내를 비롯해 2019학년도 입학전형과 지난해 전형결과 안내, 진학이나 대학생활과 진로 등에 관한 내용이다. 상담은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 누구나 가능하고 고려대 인재발굴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진로진학상담센터는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2번출구에서 바로 이어지는 고려대 라이시움 1층에 있으며 고려대 건학이념을 담은 '자유, 정의, 진리' 총 3개의 상담실로 구성된다. 8일부터 8월까지 평일 10시~17시까지 운영되고 1회당 20분씩 상담이 가능하다.

고려대 관계자는 "고려대 진로상담센터는 국내 대학 최초의 상설 운영되는 입



고려대 상설 진로진학상담센터 상담실 /고려대학교

시전문 상담센터"라며 "체계적인 입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목말라했던 수험생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사설 입시컨설팅을 받아야 했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건국대 로스쿨, 변시 합격률 95% '전국 1위'

입학정원 40명 대비 38명 합격  
최근 2년간 전국 최상위권 기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권종호)은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입학정원 40명 대비 38명이 합격해 합격률 9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기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건국대에 이어 고려대(94.17%), 아주대·중앙대(94.00%), 서울대(93.33%) 순이다.

권종호 원장은 "합격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국대 로스쿨은 최근 2년간 입학정원 대비 전국 최상위권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아울러 로스쿨 누적합격률과 특정 연도 총합격자도 공개해야 해당 연도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국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우수 강의 교수들을 3학년 세미나 수업에 전진 배치하는 등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또 매 학기말 학습능력 측정시험과 함께 첨삭지도도 진행하고, 수시로 외부 교수들을 초빙해 변호사시험 주요 과목에 관한 특강도 열고 있다. 특히 졸업생 중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원장들이 정기적으로 학업상태를 밀착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용수 기자

## 교육부, '사학비리제보자 정보 유출 의혹' 서기관 직위해제

경기권 S대학의 사학비리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교육부 이모 서기관이 해당 사학 측에 유출한 의혹이 일부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4일자로 이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사립대 교직원 2명과 함께 검찰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사학비리로 실태조사를 받은 사립대 관계자에게 내부 제보자 정보를 유출한 교육부 직원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약 3주에 걸친 사안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교육부 이 서기관은 경기권 S대학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같은 재단 전문대 강도 경영관리실장과 4~5차례 만났게 확인됐다. 두 대학은 같은 재단 소속이고, 이 서기관과 강 실장은 대학 선후배 관계로 수차례 식사 자리를 갖고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 서기관이 S대학 내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두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수회 만났고 S대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 후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발표된 결과 관련해 대화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당사자들이 유출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의뢰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할 방침이다. 강 경영관리실장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정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학교 측에 문책과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지난해 11월 S 대학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 총장이 부친 장례식 비용 2억 원을 교비로 집행하는 등 100억대 회계부정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이 서기관은 강 경영관리실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식대 4만3000원을 모두 강 실장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이 서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이 서기관이 충청지역 A대학 교수에게 이 대학 총장



비리 관련 교육부 내부 자료를 휴대폰으로 전달한 혐의도 확인했다. 해당 자료에는 비리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인적사항과 교육부의 향후 조치계획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인사·감사·민원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 징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하고, 사학비리 제보자가 적극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